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면 세금 전액 환급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도 공제

안경·렌즈비, 교육비 등은 조회 안되면 영수증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 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다. 특히,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이 있어 이를 잘 챙기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를 지출한 도서·공연비의 경우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 후 활용하면 공제받을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 대상으로 제공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의 경우 주택고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길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게 국세청의 당부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제출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 이때문에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인 가족(자녀 1명)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경우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의 경우 동의절

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하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뒤 신청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수 있다.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전화(126)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전문 상담가의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7.18 (+32.66)	금리 (국고채 3년)	1.80 (0.00)
↑ 코스닥	690.39 (+7.30)	↓ 환율 (USD)	1120.70 (-2.30)

유·스퀘어 교통·문화·푸드 정보 쉽게 모바일 앱 출시

광주 유·스퀘어가 15일 교통·문화·푸드·쇼핑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사진)을 출시했다.

길찾기 기능으로 유스퀘어 내 70여개 식당과 40여개 쇼핑·편의시설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교통 앱과 연계해 버스 운행시간 확인과 좌석 예약도 가능하다.

유·스퀘어 문화관 내 공연과 전시 소식도 받아볼 수 있고 안드로이드와 IOS 사용자 모두 ‘유스퀘어’로 검색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스퀘어는 앱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500명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100명)과 바나나맛우유 교환권(400명)을 제공



한다.

광주 유스퀘어 관계자는 “모바일 앱으로 유·스퀘어 내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 거리, 먹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네시스 G70·코나 ‘북미 올해의 차’ 선정

현대차 제네시스 G70과 코나 ‘2019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한국 완성차 업체가 북미 올해의 차 3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5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제네시스 G70과 코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2019 북미 국제오토쇼’에서 각각 승용(car) 부문과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부문에서 ‘2019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G70은 지난 2009년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BH)와 2012년 현대차 아반떼에 이어 한국차로는 3번째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단 60여명이 해당 연도에 출시된 신차를 가운데 승용차와 SUV, 픽업트럭 등 3개 부문의 최종 후보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제네시스 G70은 최종 후보에 함께 오른 혼다 인사이트와 볼보를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됐다. G70은 BMW 3 시리즈와 아우디 A4 등과 비교해 가격 대비 경쟁력이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G70은 캐나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가이드 주관 ‘2019 올해의 차’에 오르는데,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미국 모터트렌드의 ‘2019 올해의 차’에



현대차 제네시스 G70



현대차 코나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차 코나(전기차 모델 코나 EV 포함)는 ‘2019 올해의 차’ SUV 부문에서 최종 후보로 경쟁한 아큐라 RDX, 재규어의 전기차 ‘I-페이스’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

코나는 EV 모델의 가격 경쟁력과 주행 가능 거리 등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차세대 SUV 디자인과 첨단 주행 안전 기술 적용 등도 호평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창업자 재도전 지원 설명회

21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돕는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가 열린다.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흥선)에 따르면 오는 21일 중소기업재도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가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안내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화(062-600-3024)로 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 선물은 홍삼으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지하 1층 정관장 매장에서 직원이 홍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정관장 매장에서는 오는 2월 6일까지 최대 1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제조업 새해 경기 전망 ‘비관적’

BSI 64...최근 10년 가장 낮아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새해 경기 전망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1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16포인트 하락한 6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BSI 64는 2009년 1분기

(60)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역 기업들의 부정적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상의는 자동차·타이어·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불황, 산업 활동 비수기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

로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2.9%(18개사)로 전분기보다 감소한 반면, ‘악화’ 또는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4.3%(62개사)로 전분기보다 증가했다. 또 전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도 40.1%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짝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 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카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